

고용노동부는 가칭「메가특구특별법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

1. 관련 기사

- 8.6.(목) 조선일보, “현재 반도체 기업들 주 52시간 예외 없어도 수익 어마어마하더라”
- 8.6.(목) 매일경제, 김영훈 “주52시간 예외 없어도 반도체 이익 엄청나”
- 8.6.(목) 한국일보, 메가특구 ‘주52시간 예외’에 신중론…노동장관 “예송논쟁 안 돼”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반도체·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를 견인하고, 소멸해가는 지역을 성장으로 반등시키기 위해 가칭「메가특구특별법」 제정을 추진 중임
 -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,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임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임희종 (044-202-7064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원 (044-202-7068)
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 주무관	변재연 (044-202-7541) 오혜란 (044-202-7973) 김찬욱 (044-202-7972)